22.10.30. 일욜엔양생단풍 『사이보그가되다』 연립과 환대의 미래론

*타인을 만나는 일*

*약간의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타인이랑 애초에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 편견과 다른생각, 동의하기 어려운 이념의 운반체다.(299p)*

*비대면의 시대는 ‘안전’하겠지만 차이를 존중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차이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음새도 없을 것이다.(300p)*

*장애인운동의 목표란, 자립이 아니라 연립을 기본적인 삶의 조건으로서 지향하는 것이라 면서 이때 자기결정권(자율성)이란 ‘여러 주체들이 상호 의존적관계 속에서 서로의 의견과 판단을 소통하고 조율해가며 실현할 수 밖에 없는 권리임을 강조한다. 나는 연립이라는 삶의 조건을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의 협력과 연대, 연결을 넘어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타자’와도 잇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타자는 나를 돕는 활동지원자이고, 안내견이고, 휠체어이며, 보청기이고, 오토박스이고, 청테이프이고, 친구들이며, 관객이고, 독자들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등장할지도 모를 어떤 존재이다 (305p)*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은 분명 각자가 가지고 있다. 그런 방식이 없다면 선택의 기로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것이고, 이세상에서 태어나 걷고, 말하고, 먹는 것을 배운 것처럼 매순간을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살아온 삶에서 정상과 비정상, 옳고 그름,으로 쉽게 프레임을 만들어 대상화 하고 있는 나의 관념에 접근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정상이라고 쓰고 있는 일상언어에 대한 생각을 하던 중 일화가 오버랩 되었다. 집에서 쓰는 오래된 핸드 그라인더가 있다. 원두투입구가 돔형태로 덮고 있다. 원두를 튀게 하지 않고 일정한 양을 조절해주기도 하고 먼지를 쌓이게 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해서 구입했다. 쓰다보니, 양을 늘리고 싶었고, 돔을 열고 닫고 여간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있던 그대로 양을 늘리고 싶으면 동작을 다시한번 반복했다. 어느날 아침 바쁜출근시간 실수로 바닥에 떨어트리면서 부품이 분리되어 버렸고, 그것을 분리배출이 번거로워 버리지도 못하고 담아두었다. 남편이 이건 조립해서 쓰면 될텐데.. 하면서 처음 모습과 다르게 조립을 했다. 돔을 없애 버렸고, 칼날과 이어져 있던 분쇄도를 조절해주는 나사2개 중 귀찮다고 1개만 이어주었다.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해 핀잔을 주었지만, 쓰다 보니 돔이 없어 양을 마음데로 늘릴수 있었고, 나사가 하나밖에 없어 삐그덕 거려 분쇄도는 고르지 않지만 커피맛은 쓰지 않고 연한 상태로 맛을 낼 수 있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맛을 내는 그라인더가 되어있다.

‘정상이 아니네’, ‘정상 아니면 버려’, 이런 언어가 남무하고 있다. 정상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각하며 쓰고 있었던 것일까? 라고 자문 하는 시간 이였다.

*왼팔이 점점 변해 닭이 된다면 나는 새벽을 알리겠다고 오른팔이 점점 활이 된다면 나는 올빼미를 잡아 구워 먹겠네. 내 꼬리뼈가 점점 변해 수레바퀴가 되고 내마음이 말이 된다면, 그것을 탈테니 따로 수레가 필요하겠는가?* 병에 걸려 꼽사등이가 된 자여 자신의 몸의 대한 생각은 사이보그가 되는 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결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았다. *‘생사를 편안히 때의 추이에 맡기면(안배이지화)슬픔과 기쁨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네’ <낭송장자189>*

 신체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비장애인의 시선이 내면화 되어 있다던 김초협 작가, 본인의 의존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던 두작가의 대담내용에서도 신체장애와 비장애의 카테고리가 아닌 당장 우리 삶이 이원화된 정체성에서도 대입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정상과 비정상, 남자와 여자, 결혼자 비혼자, 이생애와 동성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참과 거짓, 각자의 정체성을 공유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음새 혹은 틈, 과 같은 타자를 만나야만 가능한 시대 그 타자를 거부하지 않는 유연함(청테이프)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틈을 낼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다.